

무주군, 천마 우량종 개발 최선

천마 농가 대상 유성자마 생산기술 교육... 양질 천마 생산·농가소득 기대

무주군이 국내 우수 농특산물로 꼽히고 있는 천마 우량 종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관내 효자 특산물인 천마 종자 갱신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 고품질 우량 천마를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천마를 생산, 재배농가들의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천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실험실에서 우량종자 개발에 대한 기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 대상자들도 창의적인 미래비전과 참여의욕이 높고 기술 수용능력이 높은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팀장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수정 방법 및 종자형성과정 이해, ▲종자접종 방법 실습, ▲재배환경 유지관리이며, 8월 중 천마재배 농장 현장방문도 실시, 유성자마 우량 종자 재배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로써 교육을 통해 천마 인공수정을 통한 종자 생산방법과 유성자마 생산기술 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어 천



무주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천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실험실에서 우량종자 개발에 대한 기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에 들어갔다.

마 농가들이 우량 종자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무주 천마가 무주를 넘어 전국 특산물로 발전하기까지는 무주천마사업단과 함께 양질의 품종의 천마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연구결과와 유성생식에 의한 우량 유성자마 연구·생산·증식·보급 체계를 확립하는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며 "농가소득의

근간이 될 천마 우량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기술 교육에 우선 최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우수한 상품 생산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의 천마 재배면적은 32.5ha(전국 12%), 연간 생산량 9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를 의암공원 일대에 도시숲이 조성된다.

의암공원 일대 도시숲 조성

장수군, 7월까지 5억원 투입... 녹색공간 형성 휴식 공간 제공

장수군 장수를 의암공원 일대에 도시숲이 조성된다.

장수군은 장수한우양사과과 축제가 열리고 이용객들이 많은 의암공원 일대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올해 7월까지 도시 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공한지 및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많은 주민들과 내방객들이 찾는 의암공원 내 1ha 내외 규모의 도시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공원부지의 녹지공간을 활용해 수종 3종 29주와 관목류 3,500본, 초화류 2만본 등을 식재하고 탐방로 640m가 조성된다.

도시숲에는 축적여건 및 개화시기 등을 고려한 수목 등을 식재해 사계절

특색 있는 녹지경관이 조성되며 의암공원 주변도로와 호반을 연결하기 위해 메타세콰이아 110주와 관목울타리를 식재·조성한다. 또 누리파크 진입로 내 왕벚나무 보식을 통한 인접 관광지 활성화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의 공한지 및 쓸모없는 땅을 녹색 쉼터로 탈바꿈시키고 도심속 휴식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심지 내 녹색공간을 형성하고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쉼터를 조성해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의 녹색문화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환경의 날 기념 남대천에 EM흙공 투하

무주초 학생 참석해 EM원리 공유·하천 주변 정화활동 실시

무주군은 지난 31일 무주읍 남대천에서 '동심과 함께 하는 맑은 하천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26회 환경의 날(6.5.)을 기념하기 위해 무주군과 강 살리기 무주군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해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강 살리기 무주네트워크 이상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무주초등학교 3~5학년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EM활성액과 황토, 발효축진제 등을 반죽한 후 발효시킨 'EM흙공'을 남대천에 투하하고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가졌다.

김 모 학생은 "EM흙공에는 광합성 세균이나 유산균, 효모균 등 많은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악취를 없애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준다고 배웠다"며 "원리 설명을 듣고 흙공을

던지는 과정도 신기했지만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년부터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생활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6월 3일에는 적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전 9시부터 적상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물 순환교육을 비롯한 ▲간이 정수기를 활용한 물 정화체험, ▲물 순환 원리를 이용한 순환 팔찌 만들기, 그리고 ▲EM흙공 만들기가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진안군은 관내 농어촌 민박 시설에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로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6월 9일 가입 유예특례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 미 가입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회의 시 해당 사항을 알리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며 가입을 권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경제적 부담 겪는 농업인 비육묘 지원

무주군이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비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비 육묘를 지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무주군은 관내 공동육묘장 27개소와 협력해 5월 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6개 읍·면의 비 재배 농가 1,750농가를 대상으로 총 31만4,040판 중 17만 8,788판의 육묘를 제공했다.

군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0억5천여 만원(군비 8억 4,300만 원 포함)을 확보했다

앞서 군은 연초 각 마을별 홍보를 통해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관내 지정 공동육묘장에서 양질의 육묘를 생산해 각 농가에 공급한 것이다.

이 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를 위한 취지다.

기존에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고령농업인에 한정해 지원하던 사업을 2019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관내 모든 비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노동력 부족과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성과를 계기로 향후로도 농촌 노동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동육묘장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영수 장수군수, 사랑의 열매 나눔리더 가입

장영수 장수군수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나눔리더란 1년 내 100만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하며, 복지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수어, 기부금사용보고, 세계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전북 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6명의 나눔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나눔리더 가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사랑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체 비 재배 농가 육묘 공급 추진

진안군은 지난 31일 비를 재배 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비 육묘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만 75세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비 육묘 보조금을 올해부터 전체농가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 재배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및 공동육묘를 추진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비 육묘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억9,000만 원으로 관내 공급될 육묘 상자 관수는 51만여 상자다. 이를 비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 1,704ha를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군은 원활한 육묘공급을 위해 서 공동육묘장의 시설개보수비, 육묘과정기, 소규모 육묘장 등을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